

석사학위논문

개신교 복음주의의 죄 이해

-루터, 칼빈, 웨슬리의 죄 이해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이 광 진
2003년 11월

이광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 이 선 희

부 심 : 임 동 원

부 심 : 박 노 권

이
선
희

임
동
원

박
노
권

2003년 12월

목원대학교 대학원

개신교 복음주의의 죄 이해

루터, 칼빈, 웨슬리의 죄 이해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 : 이 선 희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이 광 진

감사의 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이 부족한 저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하시고 매순간의 과정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제자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선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시고 임동원 교수님과 박노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학원의 과정을 쉬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승일 목사님과 서정애 사모님, 시시때때로 걱정하시고 기도 해주신 오병두 목사님과 김경자 사모님,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주신 박종배 목사님과 이옥순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보시며 사랑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눈물로 기도하시는 할머니, 전도사 사위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류한 길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늘 내 곁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안이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학을 하는 동안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교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귀한 전도사님께도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2년 12월

이 광 진

목 차

I. 서론 -----	1
A. 연구동기와 목적 -----	1
B. 연구방법 -----	2
II. 종교 개혁자들의 죄 이해 -----	4
A. 전제 : 로마 카톨릭의 죄 이해 -----	4
1. 로마 카톨릭의 인간이해 -----	5
2. 죄에 대한 이해 -----	6
3. 죄 문제의 해결 -----	8
B. 마틴 루터의 죄 이해 -----	10
1. 루터의 인간 이해 -----	11
2. 루터의 원죄 개념 -----	14
3. 루터의 죄 이해의 복음주의적 기본 구조 -----	21
C. 존 칼빈의 죄 이해 -----	23
1. 칼빈의 인간 이해 -----	23
2. 자유 의지 -----	27
3. 칼빈의 원죄 개념 -----	29
4. 믿는 자들의 죄 -----	32
5. 칼빈의 죄 이해의 복음주의적 기본 구조 -----	33
III. 웨슬리의 죄 이해 -----	35
A. 칭의 이전의 인간의 죄 -----	35

1. 웨슬리의 인간이해 -----	35
1) 인간의 창조 목적 -----	35
2)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 -----	36
2. 원죄(Original sin) -----	39
3. 웨슬리의 죄 이해 -----	45
1) 죄의 세력(The power of sin) -----	45
2) 자범죄(Actual sin) -----	46
4. 회개 -----	47
1) 회미한 죄 인식 -----	47
2) 본격적인 죄 인식 -----	48
 B. 칭의 이후의 인간의 죄 -----	 51
1. 이신칭의와 중생 -----	51
2. 믿는 자들의 죄 -----	54
3. 믿는 자들의 회개 -----	59
4. 그리스도인의 완전 -----	63
 C. 웨슬리의 죄 이해의 복음주의적 기본 구조 -----	 68
 IV. 복음주의적 죄 이해의 본질 -----	 70
1. 복음주의의 죄 이해 -----	70
2. 믿는 자들의 죄 -----	74
 V. 결론 -----	 76
 참고문헌 -----	 79

I. 서론

A. 연구동기와 목적

웨슬리에 의하면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이지만 몸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이 영혼은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들, 그리고 이것들에게 작용하는 자유라고 하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간의 내적 원리라고 하는 영혼에 의하여 인간은 능동적인 행동주체가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믿음을 통하여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은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살게 될 때까지는 죄에게 포로로 잡혀 자기애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기 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라는 문제를 안고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죄와 구원에 있어 하나님 다음의 주인공인 인간의 기본 구조이다.¹⁾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겠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과 그 오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죄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웨슬리가 그의 설교에서 말한 인생의 목적, 영혼 구원의 목표인 “영원을 준비하는 것”(to prepare for eternity),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²⁾

1)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10.

2)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103.

특별히 개신교 복음주의의 죄에 대한 이해를 연구함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죄 문제 대한 오해를 없애고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B. 연구방법

개신교 복음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루터, 칼빈을 통하여 복음주의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루터와 칼빈 그 자신의 저작물들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와 함께 웨슬리도 루터, 칼빈과 같이 그 뿌리를 개신교 복음주의에 두고 있다고 보고 웨슬리는데 대해서는 그 자신의 설교들을 통해서 죄 이해를 알아본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 칼빈, 웨슬리로 이어지는 개신교 복음주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죄론은 인간론에 속한 것으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한 일은 모두 죄이기 때문에 인간론의 한 가지인 인간이 한 일에 관한 것을 죄론이라고 한다. 죄론이 인간론의 하나의 가지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상 죄론에 앞서 인간론의 첫 번째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와 그 인간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주의는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그들은 또한 죄와 그 죄의 문제의 해결 등을 진정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먼저, 루터의 인간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내적 및 외

3) 웨인 그루덴,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 은성출판사, 1997), 663.

적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원죄 개념을 통해서 루터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죄인을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칼빈의 인간이해와 죄 개념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칼빈의 죄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복음주의 기본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죄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특별히 웨슬리에 있어서는 칭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칭의 이전의 인간과 죄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 원죄, 자범죄, 인간의 자기 인식,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칭의 이후의 모습에서는 믿는 자들의 죄와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을 알아봄으로써 칭의 이후의 죄에 대해서 웨슬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II. 종교 개혁자들의 죄 이해

A.전제 : 로마 카톨릭의 죄 이해

로마 카톨릭의 죄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전에 로마 카톨릭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죄에 대한 이해-단지 죄 뿐만이 아니지만-는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 카톨릭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마지막 세계 공의회인 바티칸 공의회(1869-1870)에서 로마 카톨릭이 믿어야 할 것을 정의한 문장에서 나온다.

“더욱이 우리는 기록된 것이든 전승에 의하여 전하여진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단호한 판단이나 또는 교회의 통상적이며 보편적인 교도권에 따라서 믿음을 위하여 신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카톨릭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믿어야만 한다.”⁴⁾

로마 교회는 무엇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성서와 그리고 전승에 대하여 우리는 트레نت 공의회 선언들이 언급하듯이 성서가 전승과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승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는 오직 교부들의 만장일치적인 동의에 의해서만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서의 진정한 의미와 성서에 대한 해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교회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대답에 대해서 칼 아담(Karl Adam)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서의 “죽은 말”과 대조되는 교회적 전승

4) 빌헬름 니젤, 『비교교회론』, 이종성, 김항안 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8), 47.

의 “생기”를 찬양한다고까지 했다.⁵⁾

로마 카톨릭이 위와 같이 성경과 교회의 전승 가운데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승을 더욱 중요시한다. 더 나아가서는 전승마저도 성경과 함께 간접적 신앙 규범으로 묶어 버리고 오직 교회만이 직접적 신앙의 규범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들의 교리는 성경에 의한 기준보다는 교회, 특별히 교황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의 교리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해 역시 성경에 기초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이해관계에 기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죄에 대한 이해가 신본주의가 아닌人为本주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⁶⁾

1. 로마 카톨릭의 인간이해

최초의 인간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서 살도록 구성되었다.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성에 또 다른 은사가 덧붙여졌다. 이 은사는 모든 창조된 본성의 능력과 권한을 완전히 초월하는 은사이며 신적인 행동에 의존하는 은사였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것은 “덧붙여진 은사”로도 불리 우며, 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분한 은사로도 불리 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인간에게 주셔야 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인간의 본성에 덧붙여진 이 신적인 은사를 첫 번째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한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은사 외에 상대적인 초자연적인 은사가 주어졌다. 이러한 은사들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적 죽음의 면제, 고통의 면제등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능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창조된 본성을 능가하는 그런 은사는 아니다.

5) 위의 책, 51.

6) 뱃트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선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9), 205.

절대적인 초자연적 은사와 상대적인 초자연적 은사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고양된 본성의 상태, 즉 그의 본연의 원상태를 지닌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⁷⁾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이러한 상태와 순수한 본성의 상태를 구분짓는다. 어떠한 신학자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 지식과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자유를 부여받은 영적 존재로서 간주되어야만 할 이러한 원인간의 순수한 본성의 상태를 실재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그 순수한 본성의 상태가 한 때는 가능했다고만 본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도 인간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세울 수 있다는 신학의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⁸⁾

2. 죄에 대한 이해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하면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상실했다. 상대적인 초자연적 은사들, 즉 육체적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상실되었다. 이것은, 한결음 더 나아가, 인간이 욕정으로부터의 자유도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욕정은 죄로부터 유래되며 죄에게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아담 전체는 몸과 영혼에 있어서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 말을 인간의 본성 전체에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는, 곧 인간은 이미 그의 본성 본유의 은혜뿐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은혜까지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본성의 상태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성의 타락은 어떤 본성적 은사들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악한 능력의 획득에서 기인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초자연적 은사

7) 빌헬름 니젤, 『비교교회론』, 73.

8) 위의 책, 74.

의 상실로부터만 기인한다고 본다.⁹⁾

이와 같은 아담의 타락에 관한 입장은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말한 “나쁜 쪽으로 변화된”이라는 말의 의미를 몸과 영혼이 아담의 타락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거나 욕정이 인간을 본성과는 반대로 다스리고 그의 모든 행동들을 타락시켰다는 뜻으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바티칸 공의회는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언급을 하였다.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은 창조된 것들을 통해 만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도 있다.”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이 더 집착한다(롬1:19~23)고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실현되지 못할 어떤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견해 속에서는 철학과 신학이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있다. 그 자체의 한계들 내에서도 철학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언급들을 할 수 있다. 비기독교적 세계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믿음들이 반드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로마 카톨릭의 신학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¹⁰⁾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하면 원죄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함으로 원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을 향하여 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함으로써 단지 소극적으로만 벌을 받는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엄격성을 완화시키고자 특별한 “전(前) 지옥”이 세례 받지 못한 채 죽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고안되었다.¹¹⁾

9) 위의 책, 78.

10) 위의 책, 80.

11) 위의 책, 81.

로마 카톨릭은 인간을 살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항상 있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에 의하여 평가 받고 심판받지도 않는다. 그 결과 인간을 본질적으로 순수한 본성으로 간주하는 거의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간론이 생겨난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은혜를 덧붙여 주셨으나, 인간을 타락했을 때, 마치 물건을 잃어버리듯이 그 은혜들을 잃어버렸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순수한 본성의 상태 속에서 존재하여 왔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예전의 초자연적인 원 상태와 비교될 때에만 나빠진 것일 뿐이다. 로마 카톨릭은 원죄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단지, 인간이 한때 소유하였던 은사들의 결여로만 간주한다.

3. 죄 문제의 해결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본성은 비록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만 그러한 회복을 이를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그것과 함께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와 협력에 따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능동적이다. 인간이 신적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성령의 활동만은 아니다. 사실상 인간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이 신적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성령의 협력이 따른다. 그러나 인간 역시 똑같이 참여한다.¹²⁾

이와 같이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 강조되면서 공로 개념을 등장하게 된다. 이 공로라는 것은 성경의 보상을 대치시킨 것이다. 이 보상은 하나님

12) 뱃트 헤그룬트, 『신학사』, 223.

의 은혜로운 은사, 하나님이 그가 뜻하시는 바대로 주시는 은혜로운 보상을 이제 인간이 자신이 행하는 것 때문에 주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은혜의 상태 속에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계명들과 교회의 명령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해야만 한다. 교리문답에 의하면 교회의 명령으로는 다음 5가지가 있다. 첫째, 거룩한 날들을 의무적으로 지켜라. 둘째, 매주 일요일과 축일마다 미사에 참석하라. 셋째, 지정된 금식을 지켜라. 넷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를 하라. 다섯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받아라.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 행위와 무관하여도, 만일 주입된 은혜의 결과로서 그 행위 속에 기독교적 미덕의 행위가 살아난다면, 그 행위는 공로의 행위가 될 것이다.¹³⁾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는 자와 그의 행동들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중재적 역할이 예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즉 성인들에게 주어 진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은 그들의 중재기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우리는 중들을 너무나도 존경하나 그 영광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 자신의 의로움에 아무런 확신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성인들이 은혜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들의 공로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뒷받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 가르침이다.¹⁴⁾ 성인들에게 주어지는 존경의 한 양상은 그들의 유골, 즉 그들의 시체나 그 일부에 대한 존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 성인들의 성물에는 그들과 접촉하였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성물 숭배의 목적은 항상 성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13) 위의 책, 235.

14) 빌헬름 니젤, 『비교교회론』, 100.

B.마틴 루터의 죄 이해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위와 같은 것들은 단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의식(儀式)들, 미사들, 교황의 나라의 무한히 많은 토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가증스러운 신성모독들이며 베드로가 벵후2:1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다... 부합과 자격 있음의 공로, 날들의 차이, 고기와 사람, 맹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순례, 연옥 등과 같이 이 허구적인 견해들 속에서 교황주의자들은 그릇 인도되어 그들은 복음, 믿음, 그리스도를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특권을 스스로 취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의와 영생을 줄 수 있다.¹⁵⁾

루터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 가는 로마 카톨릭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인간이 비록 죄 때문에 창조 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상실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을 루터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전승에 대한 강조와 교황주의는 심각한 우상숭배이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신교 복음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의 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이 개신교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를 알아 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루터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루터의 원죄에 대한 개념이해를 알아보고 루터

15)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주석”, 『루터 저작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62.

의 죄 이해에 있어서 개신교 복음주의적 기본 구조를 알아본다.

1. 루터의 인간 이해

루터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모세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이들 생물들과 인간 사이에 있는 현저한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 있었다. 아담의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은 가장 순수하였다. 그의 지성은 가장 명석한 것이었고, 그의 기억은 최선의 것이었으며, 그의 의지는 가장 똑바른 것이었다. 아담 안에는 조명된 이성,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과 자기 이웃을 사랑하려는 매우 진지한 욕망이 있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탁월한 어떤 것인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공포로부터의 영속적인 자유, 선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원죄 아래 있기 전의 상태는 탁월한 상태였다. 그때의 상태는 인간이 육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영혼에 있어서도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이 심지어 다른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 죽음이나 다른 어떤 위협에 대한 공포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호의에 만족하였다.¹⁶⁾

루터가 볼 때 사람은 이중의 본질, 즉 영적인 본질과 육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지칭하는 영적인 본성에 의하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속사람, 새 사람으로 불린다. 사람들이 육이라고 지칭하는 육체적인 본성에 의하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겉사람, 옛사람으로 불린다. 인간의 이러한 두 가지 본질 때문에 성경에서도 인간에 대한 대립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사람 안에서 앞에서 말한 두 사람이 서로 대

16)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12.

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¹⁷⁾고 말하고 있다.¹⁸⁾

먼저 루터가 본 내적 인간은 의로우며, 자유로운 인간을 의미한다. 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은 의라는 개념을 기준에 일치한다는 뜻으로 볼 때 기준에 일치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때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므로 의로운 인간은 하나님께 일치하는 인간이다. 하나님께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선언할 수 있으므로, 의로운 인간은 그가 하나님께 일치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되고 선언된 인간이다. 이 사실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직관으로 스스로 알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하한 행위를 통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¹⁹⁾

반면에 루터가 말하는 외적인 인간은 육신과 관련된 영역이다. 루터는 육신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의식주를 예로 들고 있다. 외적인 것, 즉 육신의 영역, 예컨대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의미의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도 육신의 영역, 즉 외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이 자유로운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갖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그 개념 상 이미 그리스도인의

17) 갈 5:17.

18)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 저작선』, 96.

19) 위의 글, 98.

자유라는 의미의 자유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내적인 인간과 외적인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자신의 영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신앙에 의해 풍부하게 그리고 충분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믿음과 이 부요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것을 부요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위에 가멸적인 삶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현세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제어해야 하며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잘 다스리고 육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육신은 속사람과 믿음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믿음에 항거하지 않고 속사람을 훼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어를 하지 않으면 속사람을 훼방하는 것이 육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²⁰⁾

어떤 외적인 것이라도,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의와 자유를 얻는데 있어서 하등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어떤 외적인 것이 인간의 불의와 부자유에 발생에 대하여 하등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육신이 의롭게 된 영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그 영이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 영이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는 영은 자유롭게 육신은 여전히 자기에(self-love)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육신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육신은 영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외적인 것에서 영혼을 위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제어하는 동안에 그는 그 자신의 육신 안에서 저항하는 의지를 만나게 된다. 루터는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공허한

20) 위의 글, 111.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무력함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어서도 루터에게는 희망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논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의 긍정적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적 표현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의지가 항상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유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자신보다 낮은 것들에 관련해서만 그렇지, 자신보다 높은 것들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서 자유로운 선택이란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으로 보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룩한 것과 관련지어서는 인간에게 자유 선택이 허락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임을 밝혔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선택의 자유라는 말로써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에 스스로 전념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의 한 능력이라고까지 말했지만, 루터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쓸데 없는 것이라고 했다.²¹⁾

2. 루터의 원죄 개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타락하였다. 루터는 이 타락한 인간에 관해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었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상실하였다. 이제 인간은 자신만을 신뢰할 뿐이며, 자신의 노력과 공적으로 이겨나가려고 지속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악마의 형상으로 변했다. 인간의 현재적 상태에 대한 루터의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표현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

21) 마틴 루터, “노예 의지론”, 『루터 저작선』, 229.

패(total corruption)한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지금도 죄를 짓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뜻이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주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은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지혜이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처럼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말, 행동, 혹은 사상이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한평생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죄를 규정한다. 그와 같은 뿌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²²⁾

펠라기우스는 원죄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죄는 인간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전에 의해서 물려받을 수도 없고, 본성 가운데 함축되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죄의 전가 교리와 원죄의 교리를 마니교에 뿌리를 둔 신성 모독적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하나님은 새 피조물들을 그들 자신과는 무관한 죄의 짐에 억눌린 세상 속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다.²³⁾ 그러나 루터는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선언된 저주가 있으며 이 저주의 효력은 그들도 죄를 범하게 되고 죽음과 음부가 그들의 운명이 된다고 말하였다.²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그 행한 일이 과연 선한지 어떤지를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사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아주 위험스러운 오만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것만을 이기적으로 구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22) 마틴 루터. 『루터 선집2』. 지원용 역 (서울 : 컨콜디아서, 1986), 154.

23) 뱅트 헤그룬트. 『신학사』, 183.

24) 마틴 루터. “신약에 대한 서문”. 『루터 저작선』, 53.

모든 범죄의 골자요 실체다. 이렇게 자기만족적인 사람들은 경건과 미덕을 좇을 때조차도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만을 구할 뿐이다.²⁵⁾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알고 있고, 이성(이성)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을 행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장 선한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강제한다. 사실 이성이 선한 것을 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악한 일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일반적으로 선한 것을 알고 또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선한 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해 왔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선한 것을 알고 행하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한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선하고, 존귀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알 뿐이고 하나님과 남들이 보기에 선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은 사람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선만을 알고 행하려 할 뿐이다.²⁶⁾

인간의 최악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한다. 루터는 성경대로 인간의 본성을 몸과 영혼으로 구별하며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인간이 육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육” 그 자체라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의지가 악으로 향하여 속박되어 있음을 루터는 분명히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최상의 덕도 시민법의 견지에서는 칭찬할만해도 인간을 하나님께 결코 가볍게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히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25) 마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박문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88.

26) 위의 책, 151.

쉽게 악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인간은 나쁜 나무로서 악을 의지할 뿐이다. 인간의 의지란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기쁘시게 할 것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하나님 쪽으로 향해 나갈 힘도 없다. 인간의 상태는 전적 무능의 상태이다.

현재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한 아래로 그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는 모든 그의 행위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신의 기도 중에서조차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죄인으로서 행하기 때문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완전성을 상실한다. 사람이 악하고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죄 되다.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²⁷⁾ 그러므로 루터가 인식한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성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담에게 물려받았다고 하는 원죄란 무엇인가? 이성에 강한 스콜라 신학자들은 원죄를 정의하기를 의가 결핍된 상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를 근거로 “원죄란 인간의 의지 속에 들어 있는 내적인 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지성에 있어서 내적인 빛이나 기억력의 결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전체-내적인 인간, 외적인 인간, 몸과 영혼 전체까지-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가 결여된 것을 말하며, 그 전체 인간의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²⁸⁾

루터가 보는 원죄를 세부적으로 관찰해 본다면, 첫 번째로 루터는 원죄를 정욕으로 본다. 정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기주의를 말한다. 즉 이것은 선을 행하려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의지

27) 마틴 루터. 『루터 선집3』, 471.

28) 마틴 루터. 『루터 선집4』, 247.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기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루터는 정욕을 자기 추구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것을 지니고 있다. 원죄는 사실상 인간 본성이 완전히 타락된 것, 지성이 어두워진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 의지가 크게 부패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의 충동들을 따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절망하고 불법적인 변호와 치료책을 채택한다.

무엇보다 원죄의 중요 원인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었으며,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과 행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당한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웃을 대해서도 우리의 욕망에 굴복하며 강도들, 도적들, 간음자들, 살인자들이 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다. 참으로 욕망의 열정이 원죄의 일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영혼의 결점들은 더 크다.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무지, 절망, 증오, 신성모독 등이 그것이다.

원죄는 우리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 우리의 인격, 본성, 전 존재가 아담의 타락을 통해 부패되어 있다.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다. 그의 행위는 그의 존재로부터 온다. 죄는 인간이 말하고 행하고 생각할 만큼 나이가 들기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가장 증대한 죄이다. 만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실제적인 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죄는 모든 다른 죄들과는 달리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며 생존하며 모든 죄를 범한다. 그것은 단순히 한 시간 혹은 잠시 동안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존재하는 본질적인 죄이다. 하나님만이 이 본성적인 죄를 보신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 후에 우리 안에 태어난 원죄이며,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기도 하다.²⁹⁾

두 번째 루터는 원죄를 불신앙으로 본다. 원죄가 이기적인 자기 추구일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면으로서도 나타난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죄악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다.³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에, 자기 기쁨, 자기 신뢰, 자기 의에의 의존으로 연결된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선물들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 원죄는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힘이다. 인간은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간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 의지, 그리고 영광을 추구한다. 이 까닭에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말, 그의 모든 생각,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악하고 경건하지 못하다.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덕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매우 미묘한 교만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들을 오염시킨다. 우리의 육체는 매우 악하

29)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119.

30) 마틴 루터. 『루터 선집4』, 87.

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바로 고난과 겸손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겸손, 우리 자신에 대한 무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의 고백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랑을 꾸짖는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숨겨진 뻔뻔스러움이며, 교만의 죄이다. 선한 행위는, 비록 잘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에 따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따르면 치명적인 죄이다.³¹⁾

이런 원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는 원죄의 보편성이다. 즉, 비록 원죄가 인간 각자가 스스로 지은 실제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 야곱은 모태로부터 성결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다 원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하루 밖에 안 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원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가령 우리 양친이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해도 죄성이 그래도 유전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애초부터 불의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³²⁾ 두 번째는 인간의 전인적 타락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중세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영향으로 원죄를 단지 의의 결핍으로만 생각하였다. 따라서 스콜라 신학의 관점에 의하면 의의 결핍으로 인한 잘못된 부분만 제거하면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이와 같은 스콜라주의 신학은 “회개의 귀중성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대신 교만과 인간적인 악한 성질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³³⁾ 루터는 원죄를 단순히 부분적인 약점이나 죄로 보지 않았고, 그것은 전인간의 완전한 타락으로 본 것이다. 원죄의 마지막 특성은 그것의 심각성이다. 원죄는 하나의 무한한 불가해이다. 누구든지 원죄 없

31)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120.

32) 마틴 루터. 『루터 선집4』, 217.

33) 위의 책, 248.

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해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죄를 낱알이 알 수 없다고 선언해야 옳다. 특히 자신의 원죄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점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한다. 원죄의 심각성이란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루터의 죄 이해의 복음주의적 기본 구조

루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본성, 그리고 모든 인간이 부패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과 인격적 존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어떤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 안에서는 선하지 못하다. 나무가 선하지 못하므로 그 열매들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루터는 더 이상 스스로에서 도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안식처를 찾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죄의 힘과 권세를 보여주기 를 애쓰고 있다. 이것이 그의 신학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타락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인간의 감각, 의지 이성이 부패하였다. 죄는 불경건한 불의, 자기 사랑, 선의 상실과 탐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악마의 형상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를 상실하여 완전 부패하였다. 인간은 이성적 영역에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하나 자유의지도 부패하여, 구원과 심판에 관계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루터는 죄를 인격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속에 강한 세력으로서 충동한다. 그것은 죄가 그에게 시키는 것을 사람은 즐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기주의, 그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 사물에게 나타나는 저속한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한 선행하고자 하는 의지속에까지도 파고 들어가 도사리고 있는 차원 높은 이기주의,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도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기주의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 요구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계시한 그런 하나님과 다른 분처럼 취급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원하는 것들을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또는 마음에서 지어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람은 또한 좀 더 고상한 종류에 속하는 영적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이러한 영적 우상숭배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과 허영(자기 자신의 지혜나 의, 또는 흔히 얘기하듯이, 자신의 '선한 의도' 같은)에 대한 사랑이 사람을 철저히 뒤틀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책망받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자기가 공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성이 지어낸 허구를 더 독실하게 섬기는 것이다.³⁴⁾ 그래서 탐심이 원래 이기적인 자기 추구일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루터에게는 불신앙이 죄이고 신앙만이 의이다. 신앙 밖에서 또는 불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죄이다. 루터는 죄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가게 하는 것은 꼭 같은 무게를 가진 죄이다. 죄가 있다는 것에는 양적으로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그 전체가 그 성질에 있어서나 그 실체에 있어서나 타락되어 있다.

루터의 죄 의식은 인격적인 것이었으며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죄를 이해했다. 죄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악을 행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즉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앙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다.

34) 마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58-59.

C. 존 칼빈의 죄 이해

1. 칼빈의 인간 이해

칼빈은 인간이해를 인간 편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해로부터 전개해 나간다. 왜냐하면 칼빈은 무엇보다 먼저 사과의 방향을 즉시 돌이켜 그 안에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 명상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살펴 볼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³⁵⁾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그분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해로부터만 인간이해는 가능성의 터전의 방향을 제공받게 된다.³⁶⁾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것을 성숙시켜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미신에 빠져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의로 악의를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무지는 거의 대부분 교만한 허영과 강박함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적인 우둔이라는 척도로 자신을 재고 건전한 탐구를 소홀히 하여 호기심에 의해 쓸데없는 사색으로 달려간다는 사실 속에서 교만과 허영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가 계시한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모습대로 생각한다.³⁷⁾

35)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1.1, 성서 연구원 편집부 역 (서울 : 성서 연구원, 2000), 61.

36) 위의 책, I.1.2, 65.

오늘날 인간은 창조 시와는 달리 고위적인 자세로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경건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가 없으며 대담스럽고도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등의 타락성을 보여 주고 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동시에 인간은 흠으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자만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자만심이었고 범죄 이후 인간의 의지와 이성 모두 더럽혀졌다.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에게 죽음을 초래했으며 인간을 위해 주어졌던 모든 자연 질서를 그르쳐 놓아 환경의 악화를 가져왔고 후손 전체에게는 불결의 씨앗이 되어 온 인류를 감염시켜 인간 본질 자체가 부패케 되었다. 이러한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는 존재로서,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은총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스콜라주의 신학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의지를 도움으로 알고 따르는 협동적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인간의 자기 본성 자체로도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³⁷⁾ 불복종으로 자신을 망쳐온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복종에 의해 상황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해 낼 수 없는 존재로서,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은총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그분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자식 가신

37)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1.1.1, 85.

38) 위의 책, II.2.6, 53.

을 검토하지 않는 한 명백한 자기 자신의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칼빈은 인간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도록 창조질서 가운데 규정되어 있으며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이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기까지 참된 자기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 자신을 아는 것을 경건한 관조에 뒤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³⁹⁾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그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비치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하는 곳은 영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의 외형도 그것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시켜 준다는 점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관련지어 준다. 아담이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성에게 예속시키고 일체 감각을 올바로 통제하고 또 진실로 그의 탁월성이 조물주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 아담에게 부여된 완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로써 표현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적으로 깃들여 있는 곳은 정신과 마음, 또는 영혼과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그 광채가 얼마만큼이라도 빛나지 않는 곳은 없었다.⁴⁰⁾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한 전체에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순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의 빛 아래서 순수한 마음 안에서, 모든 건강한 각 기관들 안에서 보일 수 있었

39)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1.2, 65.

40) 위의 책, I.15.3, 367.

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특한 인간의 본성에서 발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는 정신과 의지, 그리고 감정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아담이 그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을 때 이러한 이탈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완전히 도말되고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패가 너무 심하여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나 무서우리만큼 추악하게 일그러졌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로 회복하여 주는 분이기에 둘째 아담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바울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⁴¹⁾고 가르친다. 이와 일치하여,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⁴²⁾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정신의 빛과 마음의 곧음,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완전성에서 나타났다고 추론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 형식이 제유적이라는 것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새롭게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에서도 최고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이 원칙은 전복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 빛났던 인간적 속성의 완전한 탁월성이지만, 후에 몹시 손상되고 거의 도말되어서 혼란되고 훼손되고 부패된 것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선택된 자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⁴³⁾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에 나타난 우수성, 완전성을 말하고 둘째로 이러한 육체적인

41) 골3:10.

42) 엡4:24.

43)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15.4, 370-371.

기능은 영혼에 상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것이라고 본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전적으로 말소된 것은 아니지만 무서울 만큼 기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 즉, 그리스도의 반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인간의 현 상태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2. 칼빈의 자유 의지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영혼에 정신을 주셔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간하도록 하셨고, 이성의 빛을 주셔서 그것의 안내를 받아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도록 하셨다. 처음 상태에 있던 인간은 이러한 탁월한 재능들로 인하여 뛰어난 존재이었고, 따라서 그의 이성과 오성, 분별력과 판단력은 지상 생활을 지휘하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선택이 추가되어 욕구를 지도하고 모든 기관이 활동을 통제하였고 이리하여 의지가 이성의 안내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하였다. 만약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생각은 대단히 조리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⁴⁴⁾

그러나 인간이 죄의 멍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으로서 결심을 통해 선을 갈망하거나 노력을 통해 그 선을 추구할 수 없다. 이 밖에 우리는 강제와 필연의 구분으로 하였으며 이 구분으로부터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나타난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한 악을 택할 자유만 가진다.

44)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15.8, 381.

칼빈은 어거스틴의 비유를 들어 의지의 노예성을 말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는 말에 비유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기수에 비유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 그 말을 타신다면 완화하고 노련한 기수이신 하나님은 그 말을 바고 인도하며 너무 늦게 가면 박차를 가하고, 너무 빨리 달리면 저지하고 또 너무 난폭하거나 너무 설칠 때에는 억제시키고, 갑자기 멈출 때는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올라타면 그는 미련하고 변덕스러운 기수처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말을 난폭하게 몰고, 도랑 속에 빠지게 하고, 절벽 위에서 추락시키고 완고함과 맹렬함으로 몰고 간다.⁴⁵⁾ 이러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같은 은혜를 통하여 의지가 기쁜 감정을 갖게 될 때,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견지하도록 형성되며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강화된다. 그 의지는 은혜의 통제를 받는 한 절대로 멸망되지 않지만, 은혜가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 의해서 그것은 선으로 변화되며 일단 변화되면 계속 선을 견지해 나간다. 선을 향한 인간 의지의 지향과 그 후의 선의 지속은 어떤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으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인간은 초자연적 은사, 다시 말해 천상생활과 영생복락을 얻는데 충분한 의뿐만 아니라 신앙의 빛은 박탈당했다. 하나님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때 인간은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은사들을 박탈당했다. 이것은 인간이 중생의 은총을 통하여 그것들을 회복할 때까지 영혼의 축복된 생활에 속하는 모든 자질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은사는 죄 때문에 부패한 모습으로 남아 인간

45)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4.1, 145.

과 짐승을 구별시켜준다. 인간의 선과 악을 분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소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부패되었으므로 기형적인 잔해만이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고 어느 정도의 섬광이 반짝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인간은 오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불꽃들은 그가 짐승과 구분되는 이성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빛은 너무나도 짙은 무지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지는 인간의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멸절되지 않았으나, 너무나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⁴⁶⁾

3. 칼빈의 원죄개념

인간의 그 본래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 칼빈은 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죄라고 규정한다.⁴⁷⁾ 다시 말해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 죄는 도적질이나 거짓말, 살인가 같은 개인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에 역행하는 태도까지도 내포한다.⁴⁸⁾ 자신의 창조주에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영적 생활이었던 것만큼, 그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곧 영혼의 죽음을 말한다. 그리고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 자연 질서를 그르쳐 놓았으니 그 반역으로 인류가 파멸하게 되었다는 것은

46)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2.12, 67.

47) 위의 책, II.1.10, 33.

48)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상)』, 740.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칼빈은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허무한데 기뻐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 전체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후, 이 심판을 자기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까지 이 비참함 불행에 빠지게 했다. 이것이 곧 유전적 부패라는 것이며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를 원죄라고 불렀다.⁴⁹⁾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하는 것인데,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며 다음으로 우리 안에 성경이 “육신의 일”⁵⁰⁾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적절하게 죄라고 부른 것이다.

칼빈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첫째, 우리는 본성의 모든 부분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으므로, 이 엄청난 부패 때문에 의와 순결과 결백이 아니고는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지는 책임은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죄 없고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아담이 범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사실인데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저주에 휘말리게 되었으므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49)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1.5, 19.

50) 갈5:19.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아담으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오염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한 우리에게 거하게 된 것이다.⁵¹⁾ 다시 말해 아담의 첫 번째 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죄책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⁵²⁾

이 부패는 마치 활활 타는 난로가 계속 불꽃을 일으키고 샘플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 이미 살펴본 육신의 일과 같은 새 열매를 계속 맺는다. 그리하여 원죄를 “우리 안에 거해야 할 시초의 의의 결핍”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은 이 정의에서 이 말의 전체 뜻을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원죄가 가진 힘이나 효력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이 의의 원천을 버린 후 영혼의 모든 부분이 죄에 의하여 점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속한 탐욕이 그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불경건이 그의 정신의 성채 자체를 점거하였고 교만이 그의 마음 속 깊이까지 침투했기 때문이다.⁵³⁾

우리가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한 죄의 원인을 감히 하나님께 돌리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왜 꼭되게도 그들 자신의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찾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완전하고, 부패되지 않았을 때의 아담의 본성에서 찾아야 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원 상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허물로부터 오는 것이다.⁵⁴⁾

51)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 1.8, 29.

52) 웨인 그루덴. 『조직신학(상)』, 747.

53)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1.9, 31.

54) 위의 책, II.1.10, 33.

4. 믿는 자들의 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칼빈의 입장에서 세가기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칭의를 보존한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양자됨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처를 입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피해를 입는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멈추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고 엡 4:30에서 증거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치 자식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의 결실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정도가 그만큼 멀어진다. 우리의 목표가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죄를 짓는 것은 그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요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다. 이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건짐 받았던 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죄악된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움을 건다고 했다. 이것들에게 양보하

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영적 능력도 감소되고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 그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그는 칭의나 양자됨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에 속하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닮았다는 그에게는 구원의 보장이 없다.⁵⁵⁾

칼빈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견인설이 전제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 받은 자는 다시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코 타락되지 않음을 전제해 두고서 죄 짓지 말 것을 경고하며 만약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5. 칼빈의 죄 이해의 복음주의적 구조

칼빈에 있어서 죄란 신적 위엄을 무시하고 이에 거스르는 인간의 행동들이라고 앞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칼빈은 그러한 행동들을 통틀어 불순종이라고 말하였다. 이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앙이며, 이것이 죄의 가장 본래적인 형태이고 모든 죄를 산출해 내는 가장 으뜸가는 죄이다. 칼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고수하지 않으면, 그의 존엄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존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일도 성의가 없어지기 마련이므로 배신이 결국 타락의 뿌리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이란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 불신앙, 불순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⁵⁶⁾ 아담의 범죄는 인간의 본래 능력을 상실케 했고 결과적으로 전 인류를 파멸케 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과정은 죄가 무엇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불충이다. 그것은 감정적인 방종이 아닌 다른 모든 무서운 죄의 근원인 불신으로서 하

55)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상)』, 761-765.

56)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1.4, 16.

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 아담의 죄의 본질을 고려해보면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인데 이 배반이란 창조자의 지배에 반항하는 것이요, 그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하고 그의 존재의 근거로부터 이탈하여 실존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아담의 영적 생활이 그의 조성자와의 합일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조성자에게서의 이탈은 그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결합이 천지간의 자연의 전 질서를 뒤집어 버렸다. 왜냐하면 아담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인멸되고 그가 구비하고 있던 지혜와 건강과 고결과 진리와 의는 상실되고 그 대신 무지와 무능과 불결과 공허와 죄악의 무서운 독충을 받아들임으로서 형벌을 받았을 때 이 형벌을 아담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와 함께 괴로움을 당하였으며 그들을 다 같은 비참 속에 빠지게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사도 바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펼친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바울이 본질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아담에게서 부패한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죽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당한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를 부패시키고 그것이 모든 후손에게까지 감염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는 모든 그 앞에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악한 뿌리에서는 악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아담 안에 그와 같은 부패의 원천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부모에게서 자손에게로 영구적인 흐름으로 옮겨졌다.⁵⁷⁾

57) 존 칼빈. 『영한 기독교 강요』 II.1.7, 27.

Ⅲ. 웨슬리의 죄 이해

A. 칭의 이전의 인간의 죄

1. 웨슬리의 인간 이해

1)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롭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⁵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사 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필요가 없었고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충족시켜 주는 것, 곧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 자세는 주안에서 기뻐하고 그가 주신 생애의 교훈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인간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생의 목적, 인간이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는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것(to prepare for eternity)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

58) 웨인 그루넬, 『조직신학(상)』, 665.

에게 인생이 부여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산다고 말한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또한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의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이다. 즉, 인간의 위대하신 창조주를 영원히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다.⁵⁹⁾

2)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 1:27f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에는 본질적 형상(The natural Image of God), 도덕적 형상(The moral Image of God), 정치적 형상(The political Image of God)이 있다.⁶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도, 불변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가 불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로 하여금 시험의 상태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설 수 있는 존재, 그러나 또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셨고, 타락하지 말도록 엄중한 경고를 그에게 주셨다.⁶¹⁾

본질적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물질이 있는 영으로 만드셨다. 이 영에게는 이해력(understanding)이 부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영은 천상의 영과

59)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06.

60) 존 웨슬리. 설교, “신생(新生)”.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377.

61) 위의 책, 378.

마찬가지로 진리를 직관으로 구별하여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즉시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자마자 그 내면의 본질을 따라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에는 무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류는 없었다. 다시 말해 그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는 주어진 이 선악을 구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상태에서는 직관적으로 작용한다.⁶²⁾ 인간은 이 이해력이라는 지로 인해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며 행하게 하는 의지(Will)를 가지고 있다. 이 요소는 인간을 단순한 짐승의 수준보다는 월등한, 하나의 높은 수준에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행하고 그 결과로 인해 기뻐하거나 슬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서들(affectations)이 있다. 이는 그가 사랑하고 바라고, 좋은 것을 기뻐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에 의하여 감동되어 질 수 있는 감수성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웨슬리는 이해력과 의지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고하는 원리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머리의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적인 원리라고도 부른다. 이것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사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고, 증오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하는 등의 능력도 있다. 그리고 보통 ‘정욕들’ 또는 ‘정서들’이라 불리는 다른 내적 감정들 전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이해력과 의지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적 원리 안에서의 유일한 행동의 원천이며 웨슬리는 이것을 영혼(the soul)이라고도 부른다.⁶³⁾

62)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40.

63)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00-101.

여기에 덧붙여서 인간은 선을 선택하게 하고 악을 버리게 하는 자유(liberty)를 가지고 있다. 웨슬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힘이라고 하였다.⁶⁴⁾ 이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매우 의지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영혼의 독특한 속성이며, 몸의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a power of self-determination)이다.⁶⁵⁾ 이것이 인간을 수동자가 아닌 자유로운 동작주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인간 외에 하나님의 문책을 받는 존재는 천사들이다. 그것은 천사도 지, 의, 정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에게는 지, 의, 정이 있으나 liberty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 의, 정 의 유무가 아니라 율법의 유무이며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부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되, 인간이 생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시련이 끝나는 시점까지 중단 없이 요구하셨다.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가 일치된 상태에 있었고 모든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⁶⁶⁾ 그러나 이 지, 의, 정이 로봇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64)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43.

65)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03.

66)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314.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부여하신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

또한 인간은 정치적 형상을 가지는데 정치적이라는 것은 원래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 1:28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부를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존재를 통치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정복하라 다스려라”하신 것은 대신해서 대변해서 다스려라 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결과의 하나가 하급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였다. 창 1:26의 선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도록 선포한 그 선포에 바로 뒤따라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도덕적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 이것은 사도에 의하면, ‘의와 진정한 거룩’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때 도덕적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랑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인간의 기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었다. 하나님은 의와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흠 없이 순전하시다. 따라서 인간도 처음에는 죄에 물든 오점 하나 없이 순전했다.⁶⁷⁾ 다시 바뀌어 말해서 이 죄의 반대 상태가 바로 거룩인데 의와 진정한 거룩의 상태가 도덕적 형상이다. 하나님이 도덕적 형상을 가진다는 것은 의와 거룩이 있다는 것이다. 지, 의, 정이 제자리에 위치에서 그 기능을 바로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도덕적 형상이다. liberty를 스스로 선용하며 나아가는 상태가 곧 의이며 거룩이다.

2. 원죄(Original sin)

67) 존 웨슬리. 설교, “신생(新生)”.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377.

그러나 아담은 이 자유(freedom of choice)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택하기 보다는 스스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악을 택하게 된다.(창3:1-7) 그 순간에 그는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서 소멸되었다. 영광이 그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전체를, 즉 의와 진정한 거룩을 상실했다.⁶⁸⁾ 이제는 의도 없고 거룩도 전혀 없는 완전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자기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롬1:24) 이 말은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것과 같다. 본질적 형상은 도덕적 형상과 같이 전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지만 그 기능들이 왜곡되어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되어 버린다. 결국 지, 의, 정이 타락하게 되었다.

본질적 형상의 왜곡은 태도 면에서의 죄(내적인 죄)와 행동 면에서의 죄(외적인 죄)로 나타난다. 첫째, 이해력의 눈을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동산의 나무 가운데 숨어서 그 자신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이해력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알 수 있다.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해력(understanding)은 사라지고 추론(reason)이 그 것을 대신하게 된 결과이다. 무지와 오류의 구름이 인간을 덮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 어두워진 이해력이라는 악한 뿌리에서 불신앙(unbelief)이 나오게 된다. 이 불신앙의 내용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떨어져나가는 태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내가 섬겨야 한다는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체! 하나님,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⁶⁹⁾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

68)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145.

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포이어바흐(Feuerbach, Ludwig Andreas)⁷⁰⁾는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의 소망의 투영이라고까지 하였다. 모든 악한 말들과 행동들(every evil words & acts)이 바로 이 불신앙으로부터 나온다.⁷¹⁾ 성경이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바알숭배, 곧 우상 숭배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의 악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에서 악의 기준은 인간의 행복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다. 인간의 의지는 오히려 완전히 정도에서 벗어나서 왜곡되었으며, 모든 선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모든 악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좋아하며 지향한다. 그 이유는 이해력이 손상되면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왜곡된 의지라는 악한 뿌리에서는 독립(independence)이라는 가지가 자라 나오게 된다. 이 독립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악이 들어오게 한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그랬던 것과 같이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교만(pride)에 빠지게 된다.⁷²⁾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말한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신에게 가르쳐주신 행복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을 발견

69)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201.

70) 바이에른주(州) 란츠후트 출생. 하이델베르크대학·베를린대학에서 수학, 헤겔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1828년 에를랑겐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강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저서 《죽음과 불멸에 대한 고찰》(1830)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것이라 하여 교직에서 추방당하였고, 그 후로는 재야(在野) 철학자로서 저술활동을 계속하였다. 주요저서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 Das Wesen des Christentums》(1841) 《장래 철학의 근본문제》(1843) 《종교의 본질 Das Wesen der Religion》(1845) 등이 있다. 그의 철학은 그리스도교 및 관념적인 헤겔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유물론적인 인간중심의 철학을 제기했다. 그의 철학은 후일, K.마르크스와 F.엔겔스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

71)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202.

72)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143.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생각들은 자기 스스로 지고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교만은 자기 의지(self-will)라는 또 다른 자기가 자라게 만든다. 즉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지를 행하기로 결정하게 된다.⁷³⁾ 이와 같은 가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교만에서는 언쟁(contention), 되지못한 호언장담,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받으며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에게 강탈하는 것이 자라나온다.⁷⁴⁾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노와 혈기나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시기하여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자기가 틀려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자량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인간의 정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상의 모든 대상을 향해 흠어져있다. 정서들이 왜곡되면서 인간의 마음의 대상은 하나님에서 피조물로 향하게 된다. 이제 그 정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타락하여 악한 뿌리가 된 여러 가지 정서들(affections)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나온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love of world), 육체의 원대로 살아야겠다(the lust of fresh)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되기를 혼외정사(fornication), 탐심, 술 취하기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⁷⁵⁾ 그래서 인간은 방탕(κωμος)하게 되고 바알, 곧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결국 지, 의, 정의 타락은 하나님을 도의시하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고 도모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엉뚱하게 인간의

73) 위의 책,143.

74)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202.

75) 롬13:12ff.

상태는 전적 부패의 상태(total corruption)가 되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어지고 인간은 전적 무능의 상태(the condition of total impotence)에 빠지게 된다. 본질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 원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형상 역시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상실되지는 않고 왜곡된 상태로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고 농사짓는 것조차도 왜곡된 형태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에서 종노릇하므로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한 쪽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의 인간을 원죄 하에 있는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의 죄악이 아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다. 심지어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죄악만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인류 일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인류 전체, 인간 본질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동일한 죄책과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다.⁷⁶⁾ 하나님이 창세기 6:5에서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 영혼, 내적 사람, 영, 내적, 외적 움직임의 원리가 선과 악의 영원한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반대되며, 정의와 자비와 진실에 대하여 반대되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대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에는 선을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질은 모두 악할 뿐이다. 그리고 이 악한 상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외한다면 가끔씩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직 악할 뿐이며, 인간은 결코 선한 상태로 이탈해 본 바가 없다.⁷⁷⁾

76) 존 웨슬리, 설교, “원죄”.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113.

77) 위의 책, 114-11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어떤 악의 휴지 기간도 없이 오직 악할 뿐이라고 웨슬리는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떠한지를 알아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성경을 통하여 보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악한 상태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인간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결길로 나갔다’, 진리와 거룩으로부터 빛나갔다고 선언하신다. 다시 말해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의 인간에 관하여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여전히 악하되 오직 악하며, 그것도 계속하여 악하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해력의 눈이 먼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그들의 영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사귄도 없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그와 사귄을 갖지 못했다. 인간은 스스로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타고난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들의 우상들을 세워놓았다.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할 명예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신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⁷⁸⁾ 이렇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죄는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전가되었다. 인간의 몸은 가멸적이 되었다.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인간 모두는 죄악 되고 악마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⁷⁹⁾

78) 존 웨슬리. 설교, “원죄”.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18-120.

3. 웨슬리의 죄 이해

1) 죄의 세력(The power of sin)

웨슬리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불렀다. 이 때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선을 알 수 없는 본성의 전적 부패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⁰⁾ 또한 웨슬리는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짓게 하는 세력’(the power of sin)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으며 무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선으로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 인간은 무오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곡시킨 존재는 바로 아침의 아들, 루시퍼(Lucifer)⁸¹⁾이다. 이 악은 마귀가 행한 일이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마귀는 세상의 시작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요일 3:8)이라고 말한다. 즉 마귀는 우주 안에서 최초의 범죄자이며, 동시에 마귀는 죄의 창안자이다. 마귀는 그의 자유를 오용하여 악을 피조세계 안으로 도입한 최초의 존재이다. 그는 최초로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유혹하고 유혹당한 존재이다. 그는 혼자 타락하지 않고, 곧 하늘의 별들의 삼분의 일을 이끌고 타락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영광과 행복을 상실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뱀의 모양으로 위장하여 이제 인간을 유혹한다.

79)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98.

80) 이선희. “존 웨슬리의 칭의론 연구(1)”. 『신학과 현장』 9집, (대전 : 목원대신학연구소, 1999), 100.

81) KJV 사14:12,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t thou cut down to the ground, which didst weaken the nations!(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2) 자범죄(Actual sin)

이제 아담이 이 범죄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순간에 죄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이 죄짓게 하는 세력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죄를 통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 왔다. 그리하여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가 온 인류에게 임하되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⁸²⁾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최초의 저주가 피조물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그의 저주가 이어지게 된다.⁸³⁾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악한 습관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존재와 세력의 지배 하에 종노릇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까닭에 그 기질과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여 본성상 악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짓게 하는 세력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절대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⁸⁴⁾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이 본성의 부패는 모든 자범죄의 뿌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나오고, 이 불신앙에 다시 독립이라는 가지가 나오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고 싶어 하게 된다. 그러한 마음에서 다시 교만과 자기 고집이 나오게 한다. 이 악한 교만의 샘에서 나오는 내적인 현상이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의욕적으로 바랄 때 허영, 칭찬을 듣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 야심,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쓴물이 흘러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들로부터 화, 증오, 원한, 복수심, 시기, 질투, 악한 억측들이 나오게 되다. 이것에서부터 모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이 나오는데, 이 정욕들은 이생에서는 많은 슬픔으로 인간을 빠져리게 하며, 만약 제 때에 방지하지 않으면, 급기야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

82)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97.

83)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홍기 역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1), 144.

84)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98.

로 던져 넣을 것이다.⁸⁵⁾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진노를 자극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한 인간의 모든 허튼 말들에 대하여, 모든 악한 일들, 그 자체로서 전적으로 악한 행동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결산해야 할 것이다.(롬14:11f) 왜냐하면 인간의 자범죄들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으며, 인간의 머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⁸⁶⁾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 죽음은 시간 안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 죄짓는 영혼을 죽을 것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 죽음으로써 처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존전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되는 것으로써 처벌을 받는 것이 사형선고이다. 영원한 죽음은 인간의 내적 및 외적 악함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다. 이제 곧 그 선고가 집행되는 것이 정당하다.⁸⁷⁾

4. 회개

1) 회미한 죄 인식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 첫 번째가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이다. 회개는 보통 '선행하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최초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여명처럼 비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범죄하면서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회미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생명으로 향하는 어떤 경향성, 어느 정도의 구원, 하

85)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02.

86) 위의 책, 203.

87) 위의 책, 204.

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눈멀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짐 받는 것이 시작을 의미한다. 양심의 가책 정도를 선행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⁸⁸⁾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최초로 생긴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은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건짐을 받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적인 양심으로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기능이라고 이해하나 웨슬리는 이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이며 생명을 향한 방향성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⁸⁹⁾

2) 본격적인 죄 인식

웨슬리는 회개를 전적무능에 대한 인식이며 죄책과 처벌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한다. 전적무능에 대한 인식은 ‘회개시키시는 은혜’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것은 보다 더 큰 자아인식을 초래하고, 그래서 둘 같은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 더 건짐 받음을 초래한다. 그 후에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구원을 체험한다. 이 구원에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⁹⁰⁾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이다. 행동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의 어느 하나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88) 존 웨슬리.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47.

89)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0.

90) 존 웨슬리.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47.

방식으로든 보상해드리기 위해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설사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고 끊임없는 순종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또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현재 및 장래의 순종을 다 동원해도 과거의 죄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을 결코 할 수 없다. 인간에게서 여분의 공로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여분의 공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⁹¹⁾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어미가 죄 중에 인간을 잉태하였으며, 인간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때부터 죄 위에 죄를 더하였음을 알고 느껴야 한다.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이 기대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움을 받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정결케 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능력을 베푸심이 아니면 한 가지 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⁹²⁾ 이와 같이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다. 인간이 얼마나 죄책이 있으며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후회할 것이 없는 철저한 회개이다. 본성의 부패로 내적 및 외적으로 모든 죄됨을 깨닫고 죄책을 깨달으며, 전전무능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부속들인 것이다. 이러한 후회할 것이 없는 철저한 회개에 이르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정서적 느낌들이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들을 무시하고 살아 온 것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91)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Ⅰ)』, 205.

92) 존 웨슬리. 설교, “산상설교(XⅢ)”. 『존 웨슬리 총서2』, 박봉배, 조종남 공역,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39.

슬픔, 자책하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며, 변명할 입이 없으며, 부끄러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볼 수가 없으며, 자신의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머리 위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곧 삼키게 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진지한 염원을 가지며, 악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려 하게 된다.⁹³⁾ 이러한 회개로 인도된 사람은 이제 믿음 받기를 사모하게 된다. 믿음을 향한 강렬한 경향성이 생기게 된다.

93)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07

B.칭의 이후의 인간의 죄

1.이신칭의와 중생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어 회개로 인도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와 같은 말씀에 기대를 걸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받기를 사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하시는 은혜라고 부른다.⁹⁴⁾ 이때 갖게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작으로나 또는 외적 감관 중 다른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하게 설득됨(a divine evidence & conviction)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의 초자연적 자명성, 영혼에게 나타내진 일종의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보는 것 또는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특수한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자신을 나를 위해 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이에 의하여 설득된 확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직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믿음에 의해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지혜요, 의요, 성화요, 구속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이다.⁹⁵⁾

94)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3.

95)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21-222.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즉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셨고 또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라고 여겨 이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바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따라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 화해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확신이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 한 마디로 말해 우리의 구원이신 그에게 가까이 하여 결국 접붙여지는 것을 말한다.⁹⁶⁾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로 인도된 인간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 될 수 있다.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요, 그것도 유일한 조건이다. 우선,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다. 즉, 아무도 믿지 않고는 칭의를 받을 수 없다. 믿음 없이는 어떤 누구도 칭의될 수 없다. 믿음만이 칭의 받기에 충분하다. 믿는 자는 누구나다, 그가 그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없든지 관계없이, 칭의를 받는다. 누구나 믿을 때 칭의된다.⁹⁷⁾

이 믿음을 통한 칭의가 일어나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자가 된다. 그의 이해력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본다. 또 그의 귀가 이제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시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 그는 창조주이자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순종한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총애에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중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

96)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351.

97)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24.

을 가져가는 것이고, 중생은 죄의 세력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와 중생은 시간의 관점에서는 상호 결합되어 있으나, 다시 말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⁹⁸⁾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웨슬리에 있어서 이 구원은 무엇 보다 먼저, 현재적 구원(a present salvation)이다. 이 구원은 실제로 얻어 누릴 수 있는 무엇이며, 이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지상 위에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믿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엡2:8) 두 번째는 인간이 구원을 얻되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믿는 자 모든 자들을 그들의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즉,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육신의 죄, 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 믿는 자는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므로,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들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주인에 대하여 갖는 형태의 모든 두려움, 즉 고문당할 것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 형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⁹⁹⁾

그리고 인간은 이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요일3:9)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98)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433.

99)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352-353.

않는다. 첫째, 어떤 습관적인 죄(habitual sin)로 인하여 죄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습관적인 죄는 죄가 지배하는 현상인데, 어떤 믿는 자 안에도 죄는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의도적인 죄(willful sin)로 인하여 죄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는 그가 믿음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모든 죄에 전적으로 대항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죄된 욕망(sinful desire)으로 인하여 죄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을 따르고자 열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위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인간적인 한계성에 근거한 결함들 자체는 그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한계성에 근거한 결함들은 그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요, 의지와 관련이 없다면 그런 결함들은 본래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¹⁰⁰⁾

2. 믿는 자들의 죄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된다.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죄를, 그것도 명백한 외적인 죄를 얼마든지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죄를 범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예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다윗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였다. 또는 그는 기름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그 자신이 누구를 믿어왔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강했다. …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죄를 범했다. 그것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¹⁰¹⁾

100) 위의 책, 356-357.

101)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위대한 특권”.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441-442.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 사람의 죄가 가능하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 자신을 지킨다면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않는다.(요일5:18) 그러나 만약 그가 그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는 그에게 충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단계를 따라 범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첫째로, 소극적인 내적 죄로 들어간다. 즉, 그의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흔들어서 일깨우지 않았다. 깨어 기도하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적극적인 내적 죄로 들어간다. 즉, 그는 마음속에서 악으로 기울어진다. 어떤 악한 욕망이나 기질에게 길을 내준다. 결국 그의 믿음 상실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시야에서 상실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다. 그러면 이제 그는 약해지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심지어 외적인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악의 씨앗인 그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¹⁰²⁾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의 부패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악으로 지향되어 있다. 그리하여 육은 성령에 거슬리어 정욕을 발한다. 그리고 이 본성의 오염은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을지라도 이 육의 정욕은 그 자체로서는 죄의 본질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순간에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지만,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육신, 즉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물론 제어된 상태로이지만) 성령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다.¹⁰³⁾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102) 위의 책, 446.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면에서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죄는 지배(reign)하지는 않지만, 남아있다(remain).¹⁰⁴⁾ 지배하지는 않지만 남아있다는 이 말은 죄에 대한 책임과 죄짓게 하는 힘이 남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기질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인간이 죄의 기질에 길을 내주지 않는다면, 죄책은 전혀 없다. 이 죄의 기질을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죄는 죄짓게 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이 죄의 기질은 성령에 거슬러 욕망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¹⁰⁵⁾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죄가 인간의 힘을 점유한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이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의 힘을 점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또한 죄가 인간의 마음을 강탈하고 계속 그 강탈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 강탈자는 이미 왕좌에서 축출되었다. 물론 그는 그가 한때 지배했었던 그 곳에 아직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사랑으로써 활동하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한다면 영혼으로부터 내적 죄와 외적 죄를 모두 물리친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사랑하는 눈이 견고하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유혹은 곧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자기 욕심에 의하여 끌려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현재의 즐거움이나 약속된 즐거움의 사로잡혀 미혹되면, 이 때 우리 안에 잉태된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다.(약 1:15.) 그러면 그는 여하한 외적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⁰⁶⁾ 죄의 기질이 사슬에 묶인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원죄 상태에 있을 때의 전적인 부패는 아니지만 부패함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103) 위의 책, 480.

104)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484.

105)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475.

106) 위의 책, 449-450.

믿는 자에게서 죄가 나타나게 되는, 발전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속에는 사랑하며 이기는 믿음의 신적인 씨앗이 남아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없다. (2) 유혹이 일어난다. 이 유혹이 세상으로부터인가, 육신으로부터인가, 마귀로부터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3) 하나님의 영이 죄가 가까이 있다고 그에게 경고하신다. 그리고 더 많이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신다. 그는 어느 정도 그 유혹에 길을 내준다. 그러면 그 유혹은 그를 더 즐겁게 하기 시작한다. (4)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의 믿음은 약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식어간다. (5) 성령이 그를 더 신랄하게 책망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 너는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6)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럽게 하는 음성에 등을 돌리고, 유혹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7)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럽게 하는 음성에 등을 돌리고, 유혹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8) 악한 욕망이 그의 영혼 안에 시작되며 퍼져나간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 (9) 이제 그는 외적 죄를 지을 수 있다. 주님의 세력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¹⁰⁷⁾

그렇다면 믿음이 먼저 상실되고 죄를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죄를 범하면 믿음을 상실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죄를 범하고 그로써 믿음을 상실하는 것인가? 아니면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상실하는 것인가? 어떤 죄는, 적어도 태만의 죄는, 반드시 믿음의 상실보다 앞선다. 어떤 내적인 죄들도 믿음의 상실 보다 앞선다. 그러나 외적인 죄들의 경우에는, 먼저 믿음을 상실하고 그러면 외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내적인 죄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다. 즉, 여하한 죄된 기질(temper), 정욕(passion), 또는 정서(affection)를 의미한다. 즉, 어떤 종류든지 또는 어느 정도든지 교만(pride), 자기의지(self-will), 세상사랑(love of the world)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탐욕(lust), 혈기(anger), 불평(peevishness)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반대되는 여하한 성향을 의미한다.¹⁰⁸⁾

그렇다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중생한 사람이 죄짓는 것은 어떻게 구

107)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447.

108) 위의 책, 458.

별되는가? 예를 들어 죄, 교만, 자기의지가 믿는 자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 믿는 자 안에 죄가 있다는 말과 같다. 그는 지금 교만하고 자기의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불신자들이 교만하거나 자기의지를 따른다거나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즉 교만이나 자기의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교만하거나 자기의지를 따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는 죄에게 복종하며 육신을 따라 걸어간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불신자와 동일하게 육신을 지닌 존재이지만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불신앙이 중생한 자, 곧 믿는 자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신앙(unbelief)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믿음이 없다는 것(no faith)을 의미하거나 또는 믿음이 적다는 것(little faith)을 의미한다. 즉, 믿음의 결여(the absence of faith)를 의미하거나 또는 믿음의 약함(the weakness of faith)을 의미한다. 전자의 의미에서의 불신앙은 믿는 자 안에 없다. 후자의 의미에서의 불신앙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안에 있다. 그들의 믿음은 보통 의심이나 두려움과 섞여 있다.¹⁰⁹⁾

중생한 자들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의 원인은, 죄의 세력은 마지막 심판 때 재림 주 예수의 발아래 멸망당하기까지는, 여전히 모든 인간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고, 중생한 자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때 이 죄의 세력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생한 자들에게 죄의 세력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믿음으로만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함 때문이다.¹¹⁰⁾

109)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478.

110)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9.

모든 사람 안에는, 심지어 그가 칭의를 받은 후에도, 두 가지의 상호 대립하는 원리가 있다. 이것이 자연과 은혜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과 영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도 성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성화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는 육적이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마귀에 대항하여 깨어있도록 권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에 대항해서도 깨어있도록 권고를 받는 것이다.¹¹¹⁾

3. 믿는 자들의 회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의 회개는 자신이 완전히 죄인이고, 죄에 대한 죄책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죄책에서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회개시키는 자 안에 있다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받기에 앞서서 있는 회개이다. 그러나 인간이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요구되는 회개가 또한 있다. 그것도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되는 구원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회개이다.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인간은 그 구원의 과정을 완성할 수 없다. 최초의 회개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들어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¹¹²⁾

그렇다면 인간은 칭의 이후의 단계에서 어떤 의미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는 흔히 죄로부터 거룩해로의 내적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의 회개는 전혀 다른 의미로

111) 위의 책, 479.

112)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482.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회개는 일종의 자기인식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죄책을 가졌으며,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죄는 지배하지는 않지만, 남아있다. 인간의 마음에 남아 있는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에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¹¹³⁾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상상했던 사람이 조만간에 여전히 교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오래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 자기 의지를 느낀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의지를 느낀다. 그는 자기의 뜻이 다소 간에 차이는 있지만 뜻에 거역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교만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지도 우상숭배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것을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도 볼 수 있다. 세상사랑 역시 진정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 속에서 느끼기 쉬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는 이생의 자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욕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실족하게 할 만큼 공격하되, 힘이 거의 하나도 남지 아니할 때까지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순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서들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강한 성향의 공격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인간이 매 순간 그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안목의 정욕, 즉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반대로 위대한 어떤 것, 아름다운 어떤 것, 또는 진지한 어떤 것으로써 그 꿈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

113) 위의 책, 483.

어 칭찬을 바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만큼 또한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과 거의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악한 치욕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질투하는 일들, 분개심, 복수심,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들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¹¹⁴⁾ 이와 함께 중생한 자가 그 믿음이 약해지면 생기는 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태만의 죄이다.¹¹⁵⁾ 이것은 소극적인 내적 죄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태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형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태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힐책하지 않는 태만, 은혜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 회중가운데서 가정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는 태만이 바로 그것이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영적인 나태, 즉 싸움을 게을리 하는 나태의 표적이라고 생각한다.¹¹⁶⁾

믿음으로 중생한 자가 이러한 내적인 죄를 정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생한 자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러한 내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의 회개의 첫 번째 가지이다.¹¹⁷⁾ 이 믿는 자의 회개의 두 번째 가지는 중생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도 자신이 내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조심스러운 이해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롬8:1)는 것을 오해하여 내적인 죄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오로지 지옥에 해당하는 정죄는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것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114)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3~11 참조.

115) 위의 책, 496.

116) 해럴드 린트스르킴. 『웨슬레와 성화』. 전중옥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교육국, 1962), 45.

117)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494.

한 대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¹¹⁸⁾ 믿는 자들의 회개의 세 번째 가지는 인간이 자신의 완전히 무력함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먼저 인간은 칭의를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선한 생각 하나라고 생각해 낼 수 없고, 선한 의욕 한 가지라고 형성할 수 없다.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여전히 어떤 종류가 되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었던 간에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력함으로써 인간이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죄책, 즉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건져 낼 수 없는 전적 무능을 의미한다. 태만의 죄들을 피할 수 없는 무능을 의미하며,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족한 점들에 대한 올바른 기질들의 결핍을 스스로 메울 수 없는 무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갈수록 근신하고 기도하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이 인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까지는, 즉 “깨끗해져라”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까지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만 그 악의 뿌리, 육신의 마음은 멸절된다. 만약 칭의 이후에 있는 순간적으로 건져내시는 것, 바로 이러한 두 번째 변화(second change)가 없다면,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죄로 가득 찬 채로 있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또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⁹⁾

믿음으로 중생한 자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회개한다면, 그 다음 인간은 ‘복음을 믿으라’(막1:15)고 하는 부르심을 받는다. 물론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그 특별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인간이 칭의를 받기 위해 믿었을 때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것이다.

118)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498.

119) 위의 책, 502.

하나님의 위격의 명백한 형상이신 그 분이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모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¹²⁰⁾

그러나 인간이 칭의를 받을 때 전적으로 성화되었다는 생각, 즉 인간의 마음이 성화의 때에 모든 죄로부터 씻어졌다고 하는 의견의 해로움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우리가 외적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적 죄의 세력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따르거나 이것에 의하여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을 만큼 꺾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 내적 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결코 아니다. 즉, 교만과 자기의지와 분노와 세상사랑, 이것들의 뿌리가 이 때 마음으로부터 뽑혀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인간이 받아들여진 후의 우리의 결함들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가 속죄하는 피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즉, 인간이 칭의 이전에 그 속죄의 피를 필요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칭의 받은 후에도 그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 즉 우리가 받은 어떤 것도 유지하지 못하는 완전한 무능력, 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마음과 생활 양자에 남아 있는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인간 스스로 건져내지 못하는 완전한 무능력, 이러한 무능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인간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쳐 준다.¹²¹⁾

4. 그리스도인의 완전(the Christian Perfection)

120) 위의 책, 502.

121) 위의 책, III.1~3.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보다 더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즉 완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임을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비기독교인과 같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서 발견되어 진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의 의미들은 설명되어야 한다. 이 일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다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²⁾

그렇다면 먼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은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무지로부터 아주 해방될 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현세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해서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개괄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전능자 자신을 만져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능자를 완전히 알 수가 없다.(욥37:23) 하나님의 속성의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현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많은 부분의 이유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때때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¹²³⁾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유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무지는 광대하며 그 아는 것은 이토록 보잘 것 없다.¹²⁴⁾

122)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515-517.

123) 요13:7.

두 번째로, 어떤 누구도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것은 무지로부터 야기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부딪칠 때 흔히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길, 거룩의 길은 너무도 쉽고 명백하여, 그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것도 자주 오류를 범한다. 그들이 아무리 실수를 피하고자 조심을 해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도 할지라도 실수하기 쉬우며, 실제로 매일같이 수를 한다.¹²⁵⁾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적 한계점들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다. 이때 인간적 한계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 한계점들이라 마땅히 부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격이 아닌 내적 및 외적 불완전한 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해력이 약하거나 느린 것, 이해하는 것이 둔하거나 헛갈리는 것, 생각에 일관성이 없는 것, 상상력이 이상하게 활발하든지 또는 이상하게 느리든지 한 것, 또는 즉석에서 기억하는 능력이나 오랫동안 기억하는 능력의 결핍 같은 것이 인간적 한계점들이다.¹²⁶⁾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완전은 이 세상의 삶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심지어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종인 인간도 유혹받게 될 것을 예상함이 마땅하다.¹²⁷⁾

124) 존 웨슬러,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러 설교 선집(1)』, I.1~3.

125) 위의 책, I.4,5.

126) 위의 책, I.7.

127) 위의 책, I.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완전한 성화에도달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은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사랑이 성품과 언행 심사뿐만 아니라 기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완전의 필연적인 열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사랑이다. 이 완전은 칭의 뒤에 가능하며 죽기 전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완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완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한 신자라도 무오류할 수는 없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지나, 과오나, 결점이나, 시험받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즉 무지나 과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 있다 하였다. 웨슬리는 이러한 완전을 “제한된 완전”이라고 하였다. 웨슬리에 의하면 범죄 전의 인간은 그의 육체적 조건이 그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었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있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법.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모든 점에서 계속적으로 엄수할 수 있었고 또 엄수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불멸의 육체가 가멸의 육체가 되었고 영혼의 장애물이 되어 이로 인하여 인간은 둔화되고 부패한 기관을 통하여서만 사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범죄 후의 인간은 과오를 범함이 숨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완전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여도 과오나 무지와 결점 등을 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²⁸⁾ 완전,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향상하며, 전보다 더 빨리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다. 완전은 나의 힘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순종을 인함이기 때문에

128) 송홍국. 『웨슬레 신학과 구원론』.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75), 144-145.

순종이 안 되던 잃게 된다. 완전의 전후에는 항상 점진적인 선행이 있다
그런 과정 중에 위에서 말한 즉각적인 변화, 즉 두 번째 변화들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완전이 도달한다.¹²⁹⁾

129)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12.

C. 웨슬리의 죄 이해의 복음주의적 기본 구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웨슬리는 종교 개혁자들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게 하고 절하게 하며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¹³⁰⁾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한다. 이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찾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 유한한 것으로부터 만족을 구하게 한다. 유한한 것에 정착하면 육체의 죄가 지배하게 된다. 결국 웨슬리는 죄의 본질을 교만, 자기 사랑, 우상 숭배에 두었다.¹³¹⁾

웨슬리는 인간의 죄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는 행동의 근본이 되고 활동을 촉진시키며 행위에 의미를 두는 성품 안에서 찾았다. 교만, 자기 사랑, 우상 숭배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잉태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결함 없이 창조되었던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 있어서도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분리시키는 자유의 원칙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담은 선이나 악을 택하거나 바르거나 나쁜 방법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인 자유와 여러 가지 감정을 포함하는 의지를 가진 이해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그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곡시킨 존재가 바로 죄의 세력인 것이다. 이 악은 마귀가 행한 일이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마귀는 세상의 시작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요일 3:8)이라고 말한다. 즉 마귀는

130) 윌리엄 R. 케논. 『웨슬리 신학』. 남기철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231.

131)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43.

우주 안에서 최초의 범죄자이며, 동시에 마귀는 죄의 창안자이다. 그 세력의 유혹에 의해 아담은 자유롭게 선보다는 악을 택한 것이다. 아담은 창조자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본질적 형상은 왜곡된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어리석고 불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잘못되고 범죄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¹³²⁾ 웨슬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는 결국 인간 자신의 본성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났으며, 자유 선택의 결과로써 나타났고, 죄의 존재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¹³³⁾

웨슬리가 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 원죄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일치함으로써 칭의되어 중생하기 이전에는 예외 없이 근원적으로 죄의 세력에 포로처럼 잡혀 있어 종노릇하는 상태로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일치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무엇으로도 이 죄의 세력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죄인의 전적 무능의 상태를 의미한다.¹³⁴⁾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시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웨슬리는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인간 안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132)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흥기 역, 144.

133) 윌리엄 R. 케논, 『웨슬리 신학』, 251.

134) 이선희,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1997, 제33집), 89.

IV.복음주의적 죄 이해의 본질

1.복음주의의 죄 이해

복음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자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권위를 둔다는 것이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 성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말하기를 원죄는 인간의 의지 속에 들어 있는 내적인 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나 나아가서 지성에 있어서 내적 빛이나 기억력의 결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 전체 즉, 인간의 모든 것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가 결여된 것을 말하여 그 전체 인간의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¹³⁵⁾ 루터는 이 원죄가 모든 죄의 모태가 되었고 육신의 범이며 우리 인간 본성의 약점이 되었고 병든 인간의 시조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고대 교부들의 말에 동의한다.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몸의 각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 전부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와 같이 온갖 마음도 약해져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모든 힘이 약화되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것들을 다 경멸해 버리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들만을 열망하게 된다는 말한다.¹³⁶⁾ 칼빈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무력하게 되었고 또 그가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 오염이 인류 전체의 본성에 미쳤다고 보았다.¹³⁷⁾ 웨슬리는 모든 인간의 선은 결핍되었으며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성의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까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고 말한다.¹³⁸⁾ 즉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었

135) 마틴 루터. “로마서 강해”. 『루터 선집4』, 247.

136) 위의 글, 248.

137) 존 칼빈. 『한·영 기독교 강요』 II.1.7.

으며 불의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육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¹³⁹⁾ 그의 본성적인 상태 속에는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며 오직 악하며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이다.¹⁴⁰⁾

따라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동일하게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선언된 저주가 있으며 이 저주의 효력은 그들도 죄를 범하게 되고 죽음과 음부가 그들의 운명이 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기쁘시게 할 것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하나님 쪽으로 향해 나갈 힘도 없다. 인간의 상태는 전적 부패(total corruption)의 상태와 함께 전적 무능의 상태(the condition of total impotence)이다. 현재 인간이 죄 가운데에 타락한 이래로 그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는 모든 그의 행위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자신의 기도 중에서조차 죄를 짓는다. 이와 같이 복음주의가 인식한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성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보여준다. 복음주의는 인간을 본래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보는 계몽주의를 거부하고 인간 편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주의는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실제적인 저항으로 본다. 죄는 의와 거룩에 있어서, 또한 영적으로 눈 멀은 상태이며, 인간 각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힘들에 대하여 노예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 불신앙이 죄의 뿌리이고 이 불신앙이 표출되는 형태가 교만과 권세욕과

138) 존 웨슬리. 설교, “원죄”.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13.

139)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01.

140) 존 웨슬리. 설교, “원죄”.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114-115.

감각적 욕욕과 이기심과 두려워하는 것과 영적인 일들을 경멸하는 것이다. 죄로 향하는 경향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으며, 죄의 세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깨뜨릴 수 없다. 이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분리되는 것이다.¹⁴¹⁾ 웨슬리에 의하면 이 불신앙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떨어져나가는 태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¹⁴²⁾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죄를 인정하지만 선행은혜라는 것을 통해 인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이 선행 은혜라는 것을 어느 정도 회복된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와 종교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선행을 가능케 하는 자유의지는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先在的 은총(Prevenient grace)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펠라기우스나 중세 천주교의 반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의 자유의지론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남- 과 다르다. 웨슬리에 있어서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성령의 선재적 은총으로 믿는 성도나 안 믿는 자연인들 속에도 부분적인 자유의지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 이 선재적 은총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양심과 종교성으로도 나타난다. 이 선재적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향해 -은총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구원의 은총을 열망하는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도 의미한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성도라도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성령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적 응답과 참여에 의해 구원이 완성된다.¹⁴³⁾

이와 같이 말하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선행 은혜는 마치도 하나님의

141) 이명재. “기독교 대한 감리회내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사조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2001), 18.

142)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01.

143)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과 영성의 재발견”. 미발행, 1.

회복시키는 행동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그래서 인간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시적인 인식적, 도덕적 및 종교적 기능처럼 오해된다. 이 기능들이 회복된 이후로는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이 기능들을 선용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갈 수 있고, 사용하지 않거나 악용하면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들은 웨슬리가 루터, 칼빈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선희 교수는 선행 은혜를 원죄로 부패된 인간의 이성, 양심,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행동과 이와 동시에 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성, 양심, 자유의지,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행 은혜를 인간학적인 기능으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¹⁴⁴⁾ 또한 이선희 교수는 선행 은혜는 단지 양심의 가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이며 희미하게 죄를 인식하는 정도라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며, 더 명백히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나 사실은 선행은혜라는 현상은 자연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개개인의 인간을 비추는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웨슬리의 설교를 근거로 반증하고 있다.¹⁴⁵⁾

웨슬리는 결코 인간의 개선된 영혼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이신칭의 이전의 인간의 영혼의 기질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웨슬리는 그의 “원죄”라는 설교에서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 속에는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며 오직 악하며 항상 악할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¹⁴⁶⁾ 굳이 루터, 칼빈과 웨슬리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웨슬리는 이러한 인간과 죄, 그리고 구원에

144) 이선희, “John Wesley의 선행은혜(Preventing Grace) 개념에 대한 소고”, 『신학과 현장』 제 11집, (대전 : 목원대학교 신학 연구소, 2001), 105.

145) 위의 책, 106.

146) 존 웨슬리, 설교, “원죄”,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114-115.

대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심은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는 은혜이며 원죄를 더욱 극명하게 들어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말한 선행 은혜를 인간의 어느 정도 회복된 양심이나 자유의지, 종교성으로 보는 주장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믿는 자의 죄

칭의 이전의 인간의 죄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 후의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도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한다. 즉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의로우며,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있어서 그의 인간적인 탐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¹⁴⁷⁾ 칼빈은 믿는 자들이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 생활에서는 죄를 떠난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지만 육신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리만큼 충분히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믿는 자들 속에서 죄는 그 지배력은 잃었으나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¹⁴⁸⁾ 믿는 자가 매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는 오래 전에 사장된 것이 라도 기억되고 고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⁴⁹⁾ 웨슬리 역시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 마음은 타락의 경향성이 있는 마음, 아직도 계속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마음이며 자만, 고집,

147) 폴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구영철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4), 342-344.

148) 존 칼빈, 『한·영 기독교 강요』 III.3.11.

149) 위의 책, III.3.18.

분노, 복수심, 세상 사랑들을 말한다.¹⁵⁰⁾ 이런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없으면 알 수도 없을 만큼 깊고, 믿는 자들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믿는 자들에게 속하는 회개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심한 죄성, 죄책, 무력함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다.¹⁵¹⁾

루터, 칼빈, 웨슬리는 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믿는 자 안에 죄가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죄는 남아 있기는 하나 이미 그 지배력은 상실한 상태의 죄이다. 믿는 자 안에도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 후에도 죄와 싸워야 하고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주의가 생각하는 믿는 자의 죄와 죄에 대한 회개이다.

위와 같이 개신교 복음주의에 있어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현실에 따라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명하는 방법과 비판하고 경계하려는 대상이 달랐을 뿐, 그들이 말하려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와 죄에 대한 것들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0)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484.

151) 위의 책, 498.

V. 결론

한국교회 내에서 복음주의를 가장한 자유주의 신학에 속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개신교도들의 도덕성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대책을 믿음 대신 행동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에서, 또는 믿음과 행동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하는 신앙생활에서 찾는 것은 단지 이신칭의 교리와 이신칭의 교리의 오용이라는 전혀 다른 실체를 동일한 실체로 착각한 실로 단순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착각에 근거하여 그들은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¹⁵²⁾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한 동안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었지만 범죄함으로 자유(freedom of choice)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하여 그 영혼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고 도모한다는 하는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total corruption)가 되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되어지고 인간은 전적 무능의 상태(the condition of total impotence)에 빠지게 된다. 본질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모두 악할 뿐이다. 그리고 이 악한 상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외한다면 가끔씩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직 악할 뿐이며, 인간은 결코 선한 상태로 이탈해 본 바가 없다.¹⁵³⁾

복음주의의 죄 이해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바로 인간을 전적 부패(total corruption)와 전적 무능(the condition of total impotence)의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신교 복음주의는 중생 이후의 신자에게 죄가 지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까지 말한다.

152)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96.

153) 위의 책, 114-115.

이런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회개시키는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는 도무지 구해 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곧 삼키게 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진지한 염원을 가지며, 악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려 하게 된다.¹⁵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길에 기대를 걸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받기를 사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하시는 은혜라고 부른다.¹⁵⁵⁾ 이때 갖게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작으로나 또는 외적 감관 중 다른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하게 설득됨(a divine evidence & conviction)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행동을 강조한다면 그에게 무엇이 생산되겠는가? 그는 끊임없이 죄만을 생산해 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람들은 인간에게로의 죄책의 유전을 부인하는 펠라기우스나 로마 카톨릭의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 복음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그 맥을 잇는 칼빈과 웨슬리의 죄에 대한 이해를 가르침으로써 한국 교회 내에서의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루터와 칼빈은 성경을 떠나 인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던

154)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1)』, 207.

155)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103.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며 성경에 근거하여 이신칭의를 강조하였다. 웨슬리 역시 영국 성공회의 인본주의적 신앙관, 행동 중심주의적 신앙관을 거부하였고, 당시 영국 사회를 지배하던 세계관인 이신론을 거부하며 이신칭의를 강조하였다. 바로 성경에 근거한 이 이신칭의가 루터, 칼빈, 웨슬리를 개신교 복음주의로 묶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겠다. 루터, 칼빈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웨슬리는 이 둘을 아주 잘 결합시킨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루터, 칼빈, 웨슬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따라 그 표현 방법만 상이할 뿐, 결론적으로 이신칭의라는 커다란 공통분모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개신교 복음주의는 인간과 죄에 대해서도 공통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일차 문헌

1) 마틴 루터

루터, 마틴. “신약을 위한 서문”. 『루터 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
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_____. “로마서 서문”. 『루터 저작선』.

_____. “시편서문”. 『루터 저작선』.

_____.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 저작선』.

_____. “노예 의지론”. 『루터 저작선』.

_____. “갈라디아서 주석”. 『루터 저작선』.

_____. “시편 강해”. 『루터 선집』, 지원용 역. 서울 : 컨콜디아서
1986.

_____. “요한복음 강해”. 『루터 선집』.

_____. “로마서 주석”. 『루터의 로마서 주석』,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2) 존 칼빈

칼빈, 존. 『영한기독교강요』. 성서연구원편집부 역, 서울: 성서연구원
2000.

3) 존 웨슬리

설교

웨슬리, 존.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이선희 역. 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_____. “원죄”.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_____.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_____. “주, 우리의 의”.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_____.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_____ .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믿음의 의”.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믿음에 의한 칭의”.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신생”.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신생의 표징들”.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 설교 선집(I)』 .
- _____ . “거듭남”. 『존 웨슬리의 설교』 . 김흥기 역. 서울 : 땅에쓰신 글씨, 2001
- _____ .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존 웨슬리의 설교』 .
- _____ . “값없이 주시는 은총”. 『존 웨슬리의 설교』 .
- _____ . 『그리스도인의 완전』 . 정행덕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1961.

2.이차 문헌

1)국내 서적

- 김흥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 『존 웨슬리의 구원론』 . 서울 : 성서연구사, 1996.
- 송흥국. 『웨슬레 신학』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5.
-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_____ .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2)번역 서적

- 그루렘, 웨인. 『조직신학(상)』 . 노진준 역. 서울 : 은성출판사, 1997.

니겔, 빌헬름. 『비교교회론』. 이종성, 김항안 역.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8.

린드스트림. 『웨슬레와 성화』. 전종옥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62.

브르너, 로버트 W. & 로버트 E 칠리스. 『웨슬리 신학 요약』. 김운기 역. 서울 : 전망사, 1988.

셀. 『존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케논, 윌리엄. 『웨슬리 신학』. 남기철 역.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헤그룬트, 벵트. 『신학사』. 박희선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9.

3)논문

이선희. “John Wesley의 선행은혜의 개념에 대한 소고”. 「신학과 현장」, (11집, 2001).

_____. “존 웨슬리의 칭의론 연구”. 「신학과 현장」, (9집, 1999).

_____.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10집, 2000.)

_____.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33집, 1997).

_____. “한국신학에 있어서 신학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의 문제”.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5).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4)학위논문

권성만. “웨슬리의 죄론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대대학원, 1979.

김민석. “존 웨슬리의 죄 이해”.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감신 대학원, 2000.

백성현. “웨슬리의 설교를 통한 죄론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대학원 2001.

이명재. “기독교 대한 감리회내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사조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이상창.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죄’개념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2002.